

황금세대 한국 사격 “한 발에 혼 담겠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 3·은 3 최고 성과
2026년 아시안게임 금 5 등 메달 19개 목표
오예진 “개인·단체전 모두 좋은 성적 기대”

황금세대를 앞세운 한국 사격이 다음 달 막을 올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AG)에서 금빛 표적을 겨냥한다.

한국 사격은 1962 자카르타 대회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직전 대회인 2022 항저우 대회는 개최국 중국의 강세 속에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를 수확했으나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내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반효진(여자 10m 공기소총)과 오예진(여자 10m 공기권총), 양지인(25m 권총) 모두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사격 대표팀은 대회 목표를 금메달 5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5개로 잡았다.

장갑석 감독은 “한 발 한 발 혼을 담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쏘아 올리겠다”며 “자신과의 싸움을 극복해 대표팀 전원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등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사격 종목은 총

28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으며,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어진다.

파리 올림픽 무대를 제패하며 한국 사격의 간판으로 떠오른 황금세대 삼총사는 이번 대회에서도 변함없는 기량을 다졌다.

오예진은 “올림픽 메달로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감정을 조

절하고 최고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려 노력 중”이라며 “개인전뿐만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각자의 기량대로 좋은 성적을 얻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양지인 역시 “특별하게 생각하기보다 금메달을 땀만 좋았던 기억만 떠올리려 한다”며 “아시안게임은 개인 종목인 만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마케 반효진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부담감을 극복하는 게 힘들었지만, 당장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며 초심을 찾았다”며 “막내로서 단체전에서 언니들에게 에너지를 주겠다”고 당차게 말했다.

‘젊은 피’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사대를 지켜온 베테랑들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신구 조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사격 대표팀은 향후 스포츠과학원에서 수집한 뇌파 트레이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인천에서 합동 훈련을 진행하며 남은 기간 담금질에 박차를 가한다.



사격 국가대표 오예진(왼쪽)과 양지인이 지난 10일 충북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후가 5회말 홈런을 친뒤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후 한 시즌 최다 홈런 경신

어제 휴스턴 전 시즌 9호
빅리그 두 자릿수 홈런 기대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즌 9호 홈런을 터뜨려 빅리그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쓰고 타율 3할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득점, 1타점을 기록했다.

이날 시즌 9호 홈런을 친 이정후는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다.

이정후는 빅리그 데뷔 시즌인

2024년 홈런 2개를 쳤고, 2025년에는 8개를 기록했다.

홈런 1개를 보태면 MLB 진출 후 처음으로 한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한다.

시즌 타율은 0.298에서 0.300(41타수 124안타)으로 올라 다시 3할 고지를 밟았다.

이정후는 1-1로 맞선 5회말 2사에서 홈런을 쳤다. 투수 웨스네스키의 2구째 시속 148.8km 몸쪽 포심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16m짜리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3-2로 앞선 8회말엔 선두 타자로 나서 좌전 안타를 기록했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초 동점을 허용한 뒤 10회초 승부치기에서 3점을 내줘 역전패를 당했다.

연합뉴스

LPGA 투어 14일 재개… 유해란 시즌 3승 도전

최근 출전한 4개 대회에서 우승 2회, 준우승 1회, 공동 6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경기력을 뽐낸 유해란이 끝맛 같은 휴식을 마치고 다시 우승 사냥에 나선다.

세계랭킹 3위 유해란은 14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탠더드 포틀랜드 클래식(총상금 200만달러)에 출전한다.

유해란은 지난 5월부터 출전하는 대회마다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다. 시즌 10번째 출전 대회인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유해란은 귀국해 약 한 달 동안 휴식을 취했고, 체력을 회복한 뒤 지난 6월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카에서 열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만끽했다.

이후 일주일을 쉬 유해란은 프랑스에서 열린 또 다른 메이저 대회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유해란은 이후 2주를 쉬었고, 영국에서 열린 AIG 여자오픈에서 공동6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K리그1 22라운드 MVP에 선정된 제주SK FC의 네게바.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제주SK 네게바 K리그1 22R ‘MVP’

지난 8일 전북 현대전서 헤트트릭 폭발

프로축구 제주SK FC의 네게바가 하나은행 K리그1 2026 22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8일 전북 현대와의 원정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폭발하며 팀의 3-1 승리를 이끈 네게바를 22라운드 MVP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네게바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경기에서 전반 23분 페널티킥 선제골을 시작으로, 후반 25분 강력한 슈팅으로 추가 골을

터뜨렸다. 이어 경기 종료 직전 왼발 슈팅으로 썸머 골까지 장식하며 득점 원맨쇼를 펼쳤다.

이날 승리로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리그 5위(승점 31)에 자리한 제주는 22라운드 베스트 팀으로 선정됐다.

후반 13분 전북 이승우의 동점골이 터지며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던 양 팀의 맞대결은 라운드 베스트 매치에도 이름을 올렸다.

제주는 라운드 베스트 11에도 네

게바를 비롯해 아이아스, 이탈리아, 세레스틴, 골키와 김동준 등 무려 5명의 선수를 배출하며 경점사를 누렸다.

한편 시즌 8승 7무 7패로 리그 5위에 오른 제주는 오는 15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리그 6위(7승 9무 6패·승점 30)인 FC안양과 23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 FC안양은 최근 2경기 모두 패한터라 상위권 도약을 위해 제주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현재 K리그1은 3위 전북(승점 34)과 8위 포항(승점 28)과 승점이 고작 6에 불과해 매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요동치고 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광복절 기획 시사기획 창(재)	6:05 TV 유치원 6:3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30 굿모닝 대한민국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목망의 달(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20 최수종의 여행사담 3(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리 좋아좋아 스페셜 11: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11:45 배베면(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블 8:50 종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열린TV 시청자 세상	8:20 어린 철학자 9:20 처음 배우는 시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2:10 왔다! 내 손주 13:25 EBS 광생학교 16:55 수상한 방송국 17:20 강황스튜디오 피아로보Z 18:20 고향민국 19:4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13:50 KBS 뉴스특보 14:10 열린세상 14:50 어린이동화테러(재) 15:20 팔도발상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3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히어로 인사이드(재) 16:00 TV 유치원(재) 16:30 상상앨범 산(재) 17:00 라디오스타 4 17:15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17:30 꿀벌 영화가 좋다	12:00 12 MBC 뉴스 12:25 양꼬리 MBC 더큐프라이임 13:25 최고!다 호기심 딱지(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PD수첩(재)	12:00 SBS 12 뉴스 12:45 위시켓 매직카드 13:00 보석네 건강 수다(재) 14:00 디블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화 15:30 에니멜러리 16:00 네모세요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테마스페셜(재)	9:00 KCTV 9시 뉴스 10:00 헬렌지 퀴즈쇼 12:40 KCTV시청자 세상 13:30 여권 들고 등객 스매신 15:30 지역이 좋고 국회가 답한다 16: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7:20 수줍음에 17:50 어쩌다 어른 19:30 황금나침반 20:00 책 읽어주는 나의 세계 21:30 인터뷰 제주를 말한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지역 소일극 북극 프로젝트 우리 동네 20:30 일일드라마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KBS 뉴스라인W 23:30 이슈 픽 앤드 함께 스페셜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목망의 달 20:30 슈퍼맨이 돌아왔다 21:50 뽀빠리뱅크 23:15 토요일 미니시리즈 결혼의 완성(재)	18:05 애들은 가라 1호집 19:05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유부녀 길러(재) 22:20 플레이어리스트 109 스페셜 22:30 라디오스타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원피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22:50 제발X형사 2(재)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규의 야영가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현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토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2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궁리만 한다고 해졌되지 않으니 주변과 함께 논의하면 좋다. 48년 나누면 기쁨이 두배이니 약속이나 참여할 일이 있으면 참석. 60년 불화나 논쟁이 올 수 있으니 언행은 신중해야 한다. 72년 심사가 많지 못하다. 관공서의 과대로 주의. 84년 한번 결정, 결심한 것을 변경하지 마라. 뒤에 후회하게 된다.

37년 자기주장이 강해지면 상대가 반격해온다. 49년 남과 더불어 의논 또는 협조할 일이 발생한다. 61년 취업을 둔 경우에는 많은 정보 파악이 절실히 필요하다. 73년 평생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면 이익이 따른다. 85년 직정, 취업관련 문제와 재테크에 활동이 지체. 이성관계 미흡.

38년 주변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조건없이 도와주면 좋다. 50년 내주장이 강하면 상대가 꺼리니 부드러운 화술이 적절하다. 62년 가정에 우환이나 문상 할일이 생기니 안부전화가 필요. 74년 돈에 이익이 있기도 하고 가아할 곳도 생긴다. 86년 사고싶은 구매 충동성이 매우 강해진다.

39년 음주나 늦은 귀가는 불리하고 행동에 장해가 따른다. 51년 귀인의 도움으로 재물을 획득하나 대인관계에 만전을 기하라. 63년 돈이 안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고달프다. 75년 갈 곳이 많고 취직이나 직업이 생긴다. 87년 직업 변화나 공부를 더 하려고 한다.

40년 위장에 탈이 오니 과식, 과음은 절제가 필요하다. 52년 급작스런 업무 증가로 바쁨이 있으니 몸 조심하고 건강관리 철저. 64년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다. 76년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뒷사람과 상의해 일을 풀어가라. 88년 이성이 찾아오고 교제를 원한다. 대화가 필요.

41년 즐거움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 허전함이 다가온다. 53년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추진해 나가면 성공을 보장한다. 65년 예술, 연구분야 상을 받거나 가치를 인정 받는다. 77년 가까운 사람과 헤어지거나 취업이 되려다 취소가 된다. 89년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실천하려고 움직인다.

42년 직원의 화합과 단결된 모습은 매출을 증가시키고 이익이 창출. 54년 정신적 고통은 있어도 기쁨이 있다. 인내가 필요한 시기. 66년 이성교제나 의외의 장소에서 행운이 온다. 78년 가정사 문제로 형제간에 논쟁이 생기니 먼저 나서서 말고 관망하라. 90년 계획하는 일이 순조롭고 의욕도 강해진다.

43년 위에 무리가 오니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섭취해야. 55년 남의 말에 동요되면 실속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자기 주관이 필요한 날. 67년 이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정직함이 우선시 하는 일진이다. 79년 이성간에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헤어짐도 온다. 91년 가정일이 화목하니 마음이 평화롭다.

44년 건강에 신경을 써야하고 무리한 일은 중지하라. 56년 사소한 일에 참견 끼어들기는 참아야 한다. 68년 기본대로 일을 처리하면, 다시 시작하게 된다. 80년 다른 곳에 한눈을 팔면 일이 꼬여 어려움이 커진다. 92년 일이 호전되고 진행이 원만하다.

45년 만남이나 자녀가 찾아오니 마음이 기쁘다. 57년 계약 매매 등에 관한 일이 생기고 수익이 생긴다. 69년 내일보다 오늘 현실이 더 중요하니 변동하지 마라. 81년 직장인은 변동을 주고 싶기도 하고 변화를 원한다. 93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남을 갖는 것도 좋다.

46년 아랫사람 또는 동료와 원활한 관계가 생산적이다. 58년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손해가 발생한다. 현상태를 고수하라. 70년 나의 생각이 틀렸음을 스스로 인정한다. 다시금 기회가 온다. 82년 나태한 행동이 주변에서 편지를 받게 된다. 94년 솔직함과 적극성이 좋은 결실을 가져온다.

47년 주변 일부만 하나씩 풀어가야 하는 바쁜 날. 59년 무언가 나에게 불리함이 있다고 무례한 언동은 자제 필요. 71년 내 생각만 참고하는 것보다 주변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좋다. 83년 기본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실수가 연속되게 된다. 심사숙고. 95년 즐거운 외출이나 여행을 할 수 있다.